



808.8km의 대장정이 끝났다. 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투르 드 코리아 2018' 마지막 5구간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표정에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양희성 동아일보 기자 yohan@donga.com

옐로 저지 품은 베토코프...산악왕은 권순영

최형민, 집중건제로 선두 수성 실패
베토코프, 18시간59분37초로 우승
산악왕 권순영, 개최국 자존심 지키

‘투르 드 코리아 2018’의 옐로 저지(우승자를 상징하는 노란색 조끼) 최종 주인공은 세르게이 베토코프(미국·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사이클링 팀)였다. 베토코프는 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막을 내린 투르 드 코리아 2018에서 총 808.8km를 18시간59분37초 만에 내달리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30일 전북 군산에서 출발한 이번 대회는 1구간(군산→천안 184.6km), 2구간(천안→영주 202.6km), 3구간(영주→정선 192.4km), 4구간(정선→충주 137km)에 이어 3일 서울에서 마지막 5구간 65km를 달렸다.



빨간 물방울 저지의 영광, 권순영이 3일 막을 내린 '투르 드 코리아 2018'에서 산악구간 1위에게 수여되는 레드 폴카 닷(빨간 물방울) 저지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다(왼쪽 사진). 종합 우승한 세르게이 베토코프(오른쪽 사진 오른쪽)와 3위 마테오 부사토가 서로에게 샴페인을 터트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양희성 동아일보 기자

1~2구간의 승자는 한국 최형민(금산 인삼첼로)이었다. “마지막 시상대까지 옐로 저지를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최고의 난코스인 제3구간에서 승부가 갈렸다. 소백산맥을 관통한 3구간은 700m 고개가 이어졌고 최고 해발 856m의 아랫재를 넘어야 했다. 국제사이클연맹(UCI)

대륙랭킹 아시아 8위를 지키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산악코스에서 특유의 조직력으로 선두경쟁을 주도했다. 1~2구간에서 3위에 올랐던 베토코프는 3구간에서 종합 1위로 올라섰고 평탄한 코스가 이어진 4~5구간에서 끝까지 1위를 지켰다. 우승 기대가 높았던 최형민은 산악

코스에 강점이 있었지만 3구간 레이스 중반 선두 그룹(벨로폰)에 홀로 남아 집중 건제를 받았고 결국 30위권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베토코프에 이어 스테판 아스타프예프(카자흐스탄·비노 아스타나), 마테오 부사토(이탈리아·왈리아)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개최지 한국의 자존심은 권순영(KSP)이 지켰다. 산악 구간 포인트 1위를 차지하며 ‘산악왕’의 상징 레드 폴카 닷(빨간 물방울) 저지를 품었다. 산악왕 2위를 차지한 리엄 매그니스(호주·드라팩)는 23세 이상 라이더 1위를 기록해 화이트 저지를 수상했다. 팀 우승은 베토코프가 활약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차지했고, 스프린터 1위 블루 저지는 레이먼드 크레더(일본·유코)가 가져갔다. 이번 대회는 인터넷으로 대회 전 코스가 생중계됐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페달을 밟으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투르 드 서울-평양 대회 문의 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진 방안 논의

“정부부처 여러 채널에서 투르 드 코리아를 서울에서 평양을 달리는 구간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일 국제도로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국민

체육진흥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도로 사이클 대회는 개최 도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만약 서울에서 평양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대회가 성사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북한의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성은 높다. 북한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그러나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고속도로가 깔려있다. 위성 지도로 살펴보면 고속철도 노선으로

차갈 될 정도로 직선 코스가 많은 고속도로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약 246km다.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147km밖에 되지 않는다.

3일 성대하게 막을 내린 ‘투르 드 코리아 2018’의 5개 구간 중 가장 긴 구간은 2구간 천안→영주의 202.6km였다. 참가 선수들이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달린 뒤 1박 후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코스도 가능하다. 올해 투르 드 코리아는 808.8km를 달렸다.

투르 드 코리아를 12년째 개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쌓았다. 2013년에는 국제사이클연맹(UCI)으로부터 2.1등급을 인정받았다. ‘2’는 이를 이상 열리는 대회, ‘1’은 대회 등급을 나타내는 숫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운영 노하우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평양 대회가 성사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갖추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투르 드 코리아의 서울-평양 대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실무진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주최: KSP 국민체육진흥공단 동아일보 협찬: IBK기업은행 SHIMANO THULE



남북은 오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입장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동아DB

남북체육회담 18일 개최 통일농구·단일팀 금물살

〈아시아게임〉

남북이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체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1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아시안게임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는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18일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통일농구대회 개최 시기와 장소,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 남북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 그리고 단일팀 구성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그동안 3번 개최됐다. 1998년 현대그룹 정주영의 방북을 계기로 이듬해 9월 현대(남자)와 현대산업개발(여자) 선수들이 평양에서 경기를 펼쳤고 그해 12월 북한팀이 서울을 방문해 2차전을 했다. 2003년 10월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을 기념하는 통일농구 경기가 평양에서 또 한 차례 열렸다. 당시 남북 모두 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재, 이상민 등 스타들이 참가했고 북에서는 키 235cm인 세계 최장신 이명훈이 나왔다. 남녀로 나눠 열린 10월 7일 경기에서 남북은 1승1패를 기록했다. 남북은 현재 통일농구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개막식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 정도가 가능할 듯 하다. 단일팀은 극히 일부 종목에 그칠리라는 분석이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데다 엔트리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아시안게임 종목들의 엔트리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종목은 카누의 ‘TBR(Traditional Boat Race·드래건 보트)’ 정도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세대교체 vs 자유침해...서틀룩 대표팀 딜레마

국제대회 참가 나이제한 위법 판결
협회 측 “종목 발전에 필요한 규정”

전통적인 올림픽 효과 종목 배드민턴 대표팀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2016~2017년 6명의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모두 세계상위권을 지켰던 빼어난 선수들이다.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수년간 독점

한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후배들에게 내주기 위한 선택, 그리고 더 활발한 개인 선수활동을 위한 결정이었다. 스타 선수 출신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강경진 대표팀 감독은 갑작스러운 전력 공백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0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육성, 초중고 학교 팀 지원 등을 위해 글로벌브랜드 빅터와 후원 계약을 맺고 있

다. 국내보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은 스타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 후원 계약이 어렵다는 갈등이 발생한다. 일년 내내 훈련과 대회가 이어져 높은 상금이 보장되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그 참가도 제한적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를 나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처음 남자기준 만27세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만31세로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다’며 이 규정을 정지시켰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매우 당혹스럽다. 은퇴 선수들의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었다. 체계적인 선수관리가 어렵게 되고 현행 대표팀 시스템 유지도 힘들어진다. 선수들의 대표팀 은퇴와 해외 리그 활동에 전념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 된다. 그동안 후원사의 후원금 총액의 20%를 선수단에 지급했고 국제대회에서 본인이 획득한 90%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